

보도자료

2011년 6월 21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 과장(☎ 750-2470)
방송채널정책과 이소라 사무관(☎ 750-2471) esora@kcc.go.kr

최시중 위원장, 방송시장의 발전 등을 위한 종편·보도PP 역할 당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월 20일(월) 6개 종편·보도PP 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종편·보도PP 업계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스마트 시대에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을 위한 종편·보도PP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종편·보도PP가 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콘텐츠 제작, 방송장비 등 미디어 관련 업계 전체의 동반 성장을 선도해 나가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더욱 재미있는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편·보도PP 업계에서는 PP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 위원장은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OTS 등 유료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판매, 프로그램 사용료 분배 등 최근 유료방송 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청자 편익,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 조화롭게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며, 업계에서도 함께 고민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과 종편·보도PP 업계 CEO들은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고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간담회에서 옥외 시청 증가 등 변화된 시청행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시청률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최 위원장은 시청률 조사는 광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임에 동의하나 매우 어려운 과제로, 방통위에서도 TV 시청행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청점유율 조사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우선 금년에 DMB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이동매체 시청점유율 조사 방안을 마련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TV 수상기는 물론, 휴대폰·태블릿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시청자의 시청행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종편·보도PP의 채널 배치와 관련하여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케이블TV 사업자와 종편·보도PP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사업자들 각자의 입장이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업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종편·보도PP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끝.